



삶의 자세

인생에는 왕복 차표가 없다

시인 김상용 님은 '남(南)으로 창(窓)을 내겠소' 라는 시에서 '왜 사냐 건 웃지요' 하는 멋진 시구로 달관의 경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태백의 시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었지만, 아마도 그 웃음은 국보급 보살상에서나 볼 수 있는 웃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으로서 감히 흉내 내기도 어려운 웃음이니까요. 왜 사냐는 물음에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경지란 깨달음을 얻은 도인이거나 바보가 아니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불굴의 투지로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예술가들의 전기를 썼고, 베토벤이 모델이 되었던 <장 크리스토프>라는

소설로 노벨상을 받은 로맹 롤랑은 인간 정신의 위대한 힘을 노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로맹 롤랑은 ‘인생의 1회성’ 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왕복 차표가 없다” 한번 떠나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고 한탄하는 사람들도 많습디만 지나간 인생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잘못 쓴 문장을 다시 고쳐 쓰듯, 추고(追考) 또는 퇴고(推敲)할 수만 있다면, 잘못된 활자를 찾아내듯 교정을 볼 수만 있다면 확실히 누구나 보다 멋진 인생을 꾸밀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 받은 차표는 한번 떠나면 돌아올 줄 모르는 길을, 죽음이라는 종점까지만 태워 줍니다. 실패가 적은 인생, 후회가 적은 인생은 얼마나 빨리 추고나 수정을 하고, 얼마나 빨리 교정을 보느냐에 달린 것은 아닐는지요. 너무 늦어버리면 그것도 불가능하게 되니까요.

‘볼티모어 선’ 이라는 신문사가 ‘만일 일년을 더 살게 해준다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현상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니!” 젊은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코웃음을 칠 것입니다.

“그냥 또 한 해가 왔구나. 이 한 해는 그냥 공짜로 생긴 해이고, 내년에도 한 해가 생길 테니까 지금 살던 대로 살면 되지 뭐”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연세가 드신 분 중에는 만감을 교차시키며 눈시울을 적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병으로 인해 죽음을 선고 받은 최후의 날이 예고된 분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어떤 암 환자는 1년만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전 재산을 바치겠다고 의사를 붙잡고 애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설사 공짜로 온 한 해라도 시간 개념을 개입시키면 그냥 공짜로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 어쩌면 이것이 최후의 한 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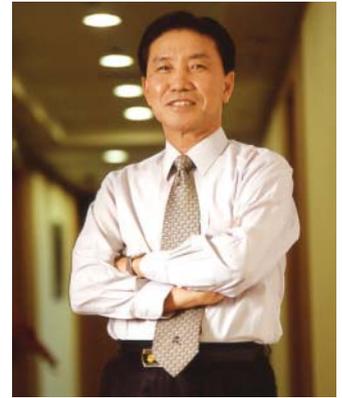
자기의 수명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공짜로 돈이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낭비하는 사람과 무언가 뜻 있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과의 차이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 신문사의 일등 작품은 여기서 굳이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나만의 정답’ 을 찾는 것이 보다 뜻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잠시 생각해봅시다.

만일 일년이 덤으로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수년 전 필자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지인에게 들은 일화가 문득 떠오릅니다. 구소련의 발레리나 안나 파블로바가 <백조의 호수>마지막 장면에서 숨을 거두는 연기를 보고, 한 원로 배우가 무대 뒤로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백조가 죽고 난 후 막이 내릴 때까지 1분 이상이나 숨을 멈추고 있더군요.” “죽은 백조가 숨을 쉴 수는 없는 일이죠. 객석에서 그걸 알아보시다니 선생님도 대단한 분이시군요.” “감사하오, 그보다 막을 내리는 장치가 고장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요?” “그럴 때는 무대 위에서 숨을 멈춘 채 죽어가야지요.”

인생을 연극에 비유한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떤 형태이건 자기 무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큰 연극 속에는 갖가지 작은 연극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서는 주연이나 조연이나와는 별도로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역에서 얼마나 충실하냐가 성패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리적으로는 숨이 넘어갈 때까지 계속 멈추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파블로바의 프로다운 자세가 평범한 우리와는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프로가 되기 위해 노력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



글 윤문기 (신성건설(주) 대표이사)